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녹색인증 상담 실시 인증 신청부터 취득까지, 환경중소기업 고충 해소 기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기술*을 인증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17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환경신기술·녹색인증 찾아가는 상담의 날'을 물종합기술연찬회의 부대행사로 개최했다.

'환경신기술 및 녹색인증 찾아가는 상담의 날'은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 분야의 연구자·기업 및 발주처 관계자가 모이는 곳을 찾아가 1:1 대면상담을 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이다.

* 환경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을 심의하여 인증

* 녹색기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을 심의하여 인증
이번 상담은 신청서류 작성방법, 평가절차 및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등 인증 신청부터 취득까지의 과정 위주로 환경신기술·녹색인증 신청인이 평소 궁금해 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다뤘다.

특히 2017년 환경신기술 신청 기업의 95%, 환경부 녹색인증 신청 기업의 87%가 중소기업으로 이번 상담을 통해 환경중소기업들이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행정업무 미숙 등과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물종합기술연찬회의 분과별 세미나에서 인증기술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환경기술의 주요 수요자인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 환경신기술과 녹색인증 기술을 소개했다.

하수분과에서는 '환경신기술 동향 및 인증·검증 기술'을, 물산업·환경산업 육성분과에서는 '물 분야 녹색기술 동향 및 녹색인증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총 6회 동안 찾아가는 상담의 날을 열어 39건의 상담을 진행해왔으며, 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찾아가는 상담의 날을 7~8회로 늘릴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베트남 지하수 관리 현대화 지원 '베트남 맞춤형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16일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과 베트남 물관리 기관인 '나와피'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맞춤형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주)하이드로넷(자동 관측장비 업체)과 2개 협력업체(근아공업, 영원케이블)

나와피(NAWAPI)는 베트남 자연환경부 산하의 수자원 계획 및 조사 기관으로, 국가 수자원 정보 통합관리와 지하수 분

석, 수질 개선 등 물관리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베트남 지하수 관측 시설 현대화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의 3개 지하수 관측 지점에 국내 중소기업의 '지하수 자동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진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범사업 총괄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관리 기술 지도를

맡았으며, 참여 중소기업은 자사의 '지하수 자동관측 장비'를 설치해 현지 인력 교육을 담당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 인력이 육안으로 측정하여 손으로 기록했던 지하수 관측 결과를 실시간 무인 원격 관측과 자동으로 기록하는 전산화로 대체하게 되었다.

환경공단, '환경정보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기관 선정 기관별·매체별로 흩어져있는 환경데이터 한곳에 모아 체계화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기관으로 지난 7월말 최종 선정되어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환경부와 소속 산하기관 등 기관별, 물·대기·자원순환 등 매체별로 산재해 있는 환경 데이터를 한곳으로 연계·수집·저장하고, 정제·표준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공유,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 빅데이터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문자,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를 말하며,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에 최근 새로운 가치(value)를 만들어 내는 것까지 의미가 확대

환경부는 '18년부터 '22년까지 약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정보융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데이터 생산을 위해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총 143개로, 한국환경공단(29%), 국립환경과학원(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16%) 순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지하수 수위와 수온 관측에 더해 수질 측정 기능이 추가되어 주민들의 생활용수인 지하수에 수질 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화를 통한 해외 판로 확대와 국내 물관리 기술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매체별로는 물환경(18%)이 가장 많으며, 자연환경(14%), 환경산업(12%) 순으로 환경데이터를 생성, 축적하고 있다.(18.5월 기준, 환경부 집계)

공단은 물, 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 전매체에 걸친 사업 수행을 통해 약 2백억 건 이상의 환경데이터를 생산·보유하고, 이를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여 환경정책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환경현안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공단은 빅데이터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위해 8월말 운영 전담조직인 '환경정보융합센터TF' 구성을 완료했다.

환경정보융합센터는 환경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생성·운영·제공, 데이터 품질관리, 서비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환경 데이터 포털, 데이터 시각화, 공간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결과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공단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와의 융합을 기대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 또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보화 속련된 기술 Vision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21세기 환경산업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재활용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화하여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재순환의 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mail: borament@borament.com
http://www.borament.com



본사 | 기술연구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38번길 16(월출동)
Tel (062) 952-7833 Fax (062) 952-7835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7길 9 (덕산빌딩 302호)
Tel (02) 584-4112 Fax (062) 952-7835

Boram Environment & Technology co., Ltd.

